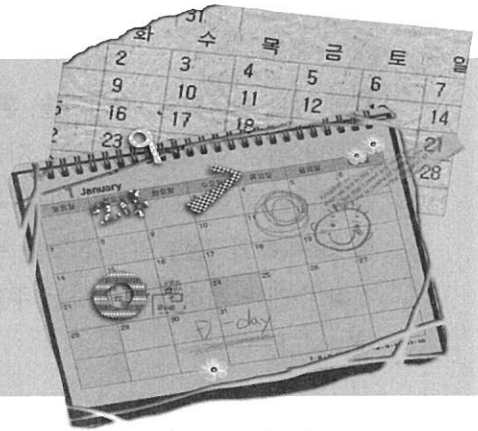


4월의 사양관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조용일, 임동현, 손준규, 백광수)



사양관리

봄 철은 일교차가 크지만 낮 기온이 온화하여 젖소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생체리듬도 회복하는 시기이다. 기상예보를 통해 따뜻한 주간을 택하여 우사 내·외부의 청소 및 소독을 통해 축사 환경을 정리하고, 운동장을 활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고, 일광욕을 통해 가족의 피부 건강 및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시기적으로 청예사료를 확보하여 급여할 수 있으나 청예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1~2주에 걸쳐 사료를 천천히 변경하여 급여함으로써 젖소가 사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생초 급여로 인해 물 섭취량이 감소할 것 같지만 봄에는 젖소의 체중도 증가하고 산유량도 증가하여 오히려 물 섭취량이 증가한다. 우유는 거의 90%의 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착유우의 물 섭취는 우유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료 건물물 1kg 섭취할 때 최고 5ℓ의 물을 마셔야 하고, 우유 1ℓ를 생산하기 위하여 적어도 3ℓ의 물을 마셔야 한다. 수조는 일반적으로 젖소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넓고 조용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조 주변으로 3~4m의 여유 공간을 두어 밀려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착유우의 물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착유 두수에 적합한 급수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젖소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자주 수조를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젖소의 사료 급여 수준을 검토하여 충분한 건물섭취량과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고 더불어 매일 분변을 치울 때 분변의 양과 상태를 점검한다. 분변 양의 증가에 따라 사료섭취량이 늘었는지, 연변인 경우 조사료의 절단 길이, 단백질 사료의 양, 사료섭취량 및 잔사량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시 주변의 컨설턴트나 사료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번식관리

젖소는 연중 다양한 생산단계, 즉 육성, 분만, 수정, 임신 및 건유 단계의 소들이 동시에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단계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봄철은 분만 후 발정발현이 많은 시기이므로 발정발견에 많은 관심을 기

울여야 정상적인 소가 번식장애우로 되어 도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고능력우는 발정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정발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정발견을 할 경우에는 관행적인 육안에 의한 관찰 보다는 발정관찰 보조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부분의 발정관찰 보조기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장 여건에 맞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번식장애는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목장에 큰 손실 요인이 될 수 있다. 번식장애는 개체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가 예방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번식장애 유형들을 숙지해 두었다가 개체관찰과 기록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축군의 공태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번식장애로 인한 도태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번식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정 발견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목장에 부재중일 때도 무인상태로 발견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발정 예정일을 표시해 두었다가 예정일이 되었을 때 질점액이 유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약발정일 경우에는 직장에 손을 넣어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궁경을 가볍게 마사지 함으로써 질점액이 나오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발정발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임신진단은 공태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임신진단을 하든지 1차로 조기에 하고 2차로 인공수정 후 90일경에 재차 진단을 하는 것이 장기공태 및 번식장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발굽장애나 유방염과 같은 스트레스는 발정생리와 수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우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개선하여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우유 생산량, 수태율이 향상되고 체세포수도 낮아지게 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서 울과 중부지방에서의 첫 황사가 3월에 관측되었고, 올봄의 황사는 평년치와 비슷한 연 5.2일이 예상되고 있다. 황사 발생시에는 공기 중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하고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가축에서도 호흡기질환 및 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은 구제역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황사 발생을 전후하여 축사 안팎 소독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먼저 황사 발생 예보가 발령했을 때는 방목지, 또는 외부 운동장에 있는 가축의 대비와 외부에 노출된 건조나 벗짚은 덮을 수 있도록 미리 피복물품을 준비한다. 황사 발생 중일 때는 외부의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축사의 창과 출입문은 닫아서 외부의 공기가 축사 내로 진입을 최소화하며, 노지에 있는 벗짚이나 건조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황사에 노출을 방지해야겠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축사 주변에 유해먼지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축사주변이나 가축에 사용하는 축산기구 등을 깨끗이 수세와 소독을 실시하고, 황사에 노출된 가축들은 먼지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로 분무 소독을 실시한다. 송아지나 분만전후의 젖소들은 면역력이 취약하기 황사가 지나간 후 며칠간 질병발생 등의 관찰을 세심히 해야겠다. 황사 발생 정보는 뉴스,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S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올봄 미리 미리 일기예보를 통해 황사에 대비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한다. ☺